

광주시, 인문학 산책길·아시아 스토리텔링 통합 플랫폼 구축

20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신규 사업 실시계획 의결 문화도시 환경조성·관광산업육성·문화교류 역량 강화

광주시가 '202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신규 사업'으로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아시아 역사문화단지 조성, 아시아 스토리텔링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최종 승인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 대부분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청 책임자, 5개 자치구 책임자, 광주시의원, 문화·관광·도시계획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문학 산책길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연차별 실시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별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실행 전략이다. 실시계획 범위는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예술 진흥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과 위상 강화 등 3개 분야다.

광주시는 조직 중심에서 전문가 그룹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 신규 사업 7건과 계속사업 57건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는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아시아 역사문화단지 조성, 콘텐츠 스퀘어 조성, 아시아 스토리텔링 통합플랫폼 구축, 언더그라운드 웹툰 캠프 운영, 광주비엔날레 빛의 파빌리온 조성 등이다.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사업은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소년이 온다' 길 코스 개발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광주정신이 깃든 인문학 지 공유·확산 등이 핵심이며, 아시아 역사문화단지 조성 사업은 신창동 마한유적지 일원에 역사와 예술을 결합한 역사문화공간 등을 구축한다.

또 아시아 스토리텔링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스토리집 창작 클러스터 조성,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창작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며, 언더그라운드 웹툰 캠프 운영 사업은 웹툰 레지던시와 웹툰 IP 융합제작 및 사업화, 웹툰 페스티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빛의 파빌리온 조성 사업은 현 비엔날레 전시관을 상설 파빌리온관(15개)으로 만들고, 파빌리온 플랫폼센터·파빌리온 실험실 등을 운영한다.

2026년 계속 사업으로는 아시아의 물 역사 테마 체험관, 국제 시각 미술 문화도시 교류플랫폼 구축, 비엔날레전시관 신축,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 등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실시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부처는 협의를 거쳐 '대통령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 보고하고, 2025년 3월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기정 시장은 "전문위·그룹 방식 전환 등으로 내실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아시아중심도시 특별법 일몰에 대비한 전략사업과 5대 문화권 연계확산 강화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상공인의 날 행사
광주 북구는 18일 용봉동 초록습지 일원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럼피스킨·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전남 축산 농가 긴장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점검

축산 전염병이 잇따르면서 전남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방역 당국은 지난 17일 영암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데 따라 긴급 방역 조치를 내리는 등 확산 차단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 발생농장은 한우 2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농장주가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확인해 영암군에 신고했고 농립축산검역본부는 17일 정밀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으로 확인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무안·신안에서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영암에서 처음 발생했다.

전남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과 도 현장조사반(2명)을 해당 농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및 감염 한우에 대한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 영암군과 인접 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무안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고 지역 가축시장 15개소도 잠정 폐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인근 전북 야생조류와 강원·충북 가금농장에서 발생, 확산 방지에 총력을 펴고 있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

자 전국 확산에 따라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그동안 운영한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군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이행상황 점검, 인체감염 예방대책,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환경 오염 방지대를 분담하는 등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럼피스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 운영 실태, 농가와 계열사 방역 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AI 원격 구강검진실 운영

내년 1월까지 시정사 1층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시가 AI 솔루션으로 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돕는다.

광주시는 "19일부터 시정사 1층에 구강검진실이 필요한 시민, 방문객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강 빅데이터 기반 AI 원격구강검진 검진실'을 마련하고,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업인 ㈜아이클로(대표 김준배)와 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

㈜아이클로는 특화된 구강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으로 구강질환을 예측하고, 조기 치료를 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덴탈 헬스케어 솔루션 선도 기업이다. ㈜아이클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거버넌스(GovTech) 혁신 페스티벌'에서 'AI 원격구강검진 솔루션'으로 최우수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상을 수상한 기업이기도 하다.

AI 원격구강검진 절차도 간단하다. 시정사 1층에 있는 원격구강검진실을 방문해 구강사진을 촬영하면, 촬영한 사진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치과 전문의에게 전달한다. 치과 전문의는 원격으로 구강질환 유무 등을 최종 진단한다.

이후 구강질환 여부를 포함한 진단 결과가 고객에게 전송돼 시민은 치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현장에는 치위생사 2명이 상주해 필요한 설명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원격구강검진 솔루션 실증 등 인공지능을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광주가 'AI 실증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AI 원격구강검진 솔루션이 구강 건강에 관심이 높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이 구강 건강 분야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시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를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K푸드 열풍'에 전남 김 수출액 사상 첫 3억달러 돌파

전체 김 수출액의 36% 차지

전남의 김 수출액이 지난 10월달 3억6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김 수출액(8억5000만 달러)의 36%에 해당한다. 지난 2010년 1000만 달러(전국 대비 7.8%)에 그쳤지만, 14년만에 그 30배에 달하는 김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김 수출 3억 달러 프로젝트(18개 과제)'와 혁신적 품질관리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김산업 종합 육성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유기 수산물 인증 확대와 김 양식어장 인증

부표 보급, 위생관리 장비 보급 및 HACCP 시설 지원, 노후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마른김 검사소 구축 등 위생과 품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것이 한몫했다.

김산업 진흥구역 4개소를 지정·지원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과 수출제품 전략적 통합 마케팅 등으로 신규 시장 개척, 수출시장 다변화에 노력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전남도는 앞으로 신규 어장 면적 확대, 외해어장 개발과 기후변화를 대비 신제품 종자 개발, 친환경 김 생산 면적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김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산물식품 수출단지를 조기에 조성하

고 국내외 바이어가 마른김을 전남을 찾아와 구매하도록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운영하는 한편, 대규모 마른김 전용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 김산업진흥원을 구축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강석은 전남도 수산유통기공과장은 "김 산업은 종자·생산·가공·수출 등 단계별 부가가치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김 수출 7억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고부가가치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